삼성ENG, 1조1200억원 석유 프로젝트 수주

삼성엔지니어링이 1조1254억원 상당의 이라크 석유 플랜트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3월23일 공시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지역에 건설되는 석유 플랜트로 웨스트 쿠르나 유전 2단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루 46만배럴의 원유를 가스와 오일로 분리하는 설비이다.

<화학저널 2012/03/23>